

종교교육학연구 제15권. pp.153~17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대순진리회 정치사상

- 서양정치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朴 熙 峯

(대진대학교)

《요약》

본 논문은 서양 철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대순진리회의 세계관과 인간관, 인간해방과 자유, 정부와 정치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본적인 본 논문의 목적이 대순 정치사상을 밝히는 것이므로 대순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서양 정치사상과의 비교를 가미할 것이다. 대순정치사상은 증산이 제창한 사상의 종교적 가르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순정치사상 역시 서양정치사상과 같이 현실을 반영하였고, 종교적 틀에서도 이상세계는 현실세계의 극복이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구복적 종교관만이 전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민중이 어떻게 해야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후천개벽이 단순히 절대자의 역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한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순진리회의 정치철학적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핵심 주제어: 대순진리회, 정치사상, 자연상태, 인간의 본성, 정부역할

I. 서론

서양 정치철학자들은 자신이 이상적 세계를 이론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세상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 자유 및 해방 등과 같은 궁극적인 인간의 목표와 국가 및 사회를 정의하고 논리를 기술한다. 또한 이러한 정치철학의 근본적인 목표는 인간 삶의

질과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플라톤(Plato)은 시민의 집단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이상국가의 목표로 하였고, 이러한 이상국가는 시민의 단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현실적인 국가의 목표를 집단적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인간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마키아벨리와 홉스는 국가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견지하였지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강력한 정부와 국가의 단결을 주장하였다. 로크는 정부의 한정된 이용가치를 심판자로 보고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방안을 찾았다. 이들 정치이론가들은 국가의 장점을 인간 이성의 실현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루소(Rousseau)와 막스(Marx)는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을 부정하였고,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중시하였다. 한편, 정치사상은 당시의 현실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즉 정치철학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인간을 둘러싼 사슬을 어떻게 풀어 더욱 살기 좋은 세계를 건설하느냐가 이들의 문제이다.

대순사상이 형성되었던 1860년대에 한반도가 외세에게 문호를 개방한 이래로 기독교 문명을 키로 삼은 서구문화는 물밀 듯이 이곳에 밀려들어 왔으며, 그 결과는 호악의 문제를 떠나서 대순정치사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은 분명하다. 당시 민중의 정서 속에는 조선왕조의 국운이 다하여 자신을 구제해 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불확실함이 증가되어 자신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갑오경장으로까지 확산된 동학정신이 일제의 관권 앞에서 무력하게 좌절되면서 일반 민중들은 이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괴리감을 절감하였을 것이며 민초들의 무기력함을 한탄하고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열망하였을 것이다.¹⁾

대순사상의 연원인 증산은 이러한 민중의 심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의식의 전환을 보다 현실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된다.²⁾ 그러므로 그의 사상은 당연히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게 되고, 정치사상 역시 이러한 시대상과 그 시대의 인간상, 그리고 다수민중의 염원을 담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은 서양 철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대순진리회의 세계관과 인간관, 인간해방과 자유, 정부와 정치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본적인 본 논문의 목적이 대순 정치사상을 밝히는 것이므로 대순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서양 정치사상과의 비교를 가미할 것이다.

1)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3쪽.

2) 전계서 : 13.

II. 세계관과 인간의 본성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치사상이 발생하였을 때의 상황은 그 사상의 세계관과 인간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세계관과 인간관은 현실을 타파하려는 정치사상에 깊은 토대가 된다. 조선 후기 사회의 국내·외적 상황은 국권의 붕괴를 맞아 정치와 경제가 파괴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피폐한 생활로 이어진다. 외척과 소수의 정치적 엘리트에 의해 전개된 권력투쟁 상황은 세도가의 부패로 말미암아 정치기강의 문란과 관리제도의 파탄으로 이어졌다. 조선조 중엽부터 관료제 유지의 바탕을 이루어왔던 과거제도도 그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과거의 합격여부는 금권과 세도에 의해서 좌우되었으며, 지방관리와 토호들은 행정의 문란을 틈타 민중들을 더욱 수탈했다. 또한 이것은 국가경영의 근간을 이루던 수취체제의 혼란을 야기하고, 농촌경제에 이르러서는 기층민중을 착취와 수탈의 희생양으로 삼고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³⁾

전경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있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冤)의 시작을 단주의 원(冤)에서 찾는다.

즉, “... 인류의 기록의 시작이고 冤의 역사의 첫 장인 堯의 아들 단주의 冤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冤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堯가 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冤을 품고 마침내 舜을 창오에서 봉계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冤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冤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가득 차서 파멸하게 되었느니라”⁴⁾고 적고 있다.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⁵⁾라고 지적하듯이, 정신문명의 보조적 수단으로 있어야 할 물질문명이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원리로 목적과 수단의 전이로 말미암아 선천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물질문명은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 생활 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 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⁶⁾고 하는 바와 같이 인류의 모든 족속간의 조화를 무시한

3) 전계서 : 15.

4)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서울 :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 공사 3장 4절.

5) 전계서 : 교운 1장 9절.

6) 전계서 : 교법 3장 23절.

데서 반목의 깊이가 깊어져 근세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약육강식의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서양의 합리주의적, 발전론적 시각에서 선천을 보면 선천은 경쟁원리에 의해 인간과 사물이 성장 및 발전하는 시대이나 이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루소의 사상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다. 근대화와 경쟁의 원리에 의해 발전한 물질문명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경에서 “또 상제께서 가라사되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고 반목투쟁 하느니라...”⁷⁾고 지적한 바와 같이, 물질문명의 경쟁관계로서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상호공존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물질문명시대적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루소는 인간의 이성의 발달을 인간의 본래의 상태(original position)인 자연과의 조화상태로부터 유리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과 전문성 등 인간의 이성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은 루소(Rousseau)가 표현한대로 “만족의 상태” 또는 “완전한 상태”인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심화되어 공허함(vanity)이 쌓이게 된다⁸⁾. 따라서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 그리하여 더욱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것은 본래의 모습에서 점점 더 이탈하며, 더욱 자연의 모습으로 멀어져 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를 잃어 더욱 불행해지고 갈등과 반목이 심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경에서의 도수의 틀어짐이 상극에서 시작되었다 함을 근대성에서의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과 대비하여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인간의 행복 또는 조화로운 삶이라는 목적에 앞서 물질문명이라는 수단을 강조하여, 마치 물질적 풍요를 위한 경쟁이 지배원리가 되어 선천의 비극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인간은 원시생활이란 자연의 상태로부터 유리되어 불행해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사상에서는 자연상태를 우선 원시사회와 선천, 후천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시사회와 후천은 이상사회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현재의 투쟁과 반목의 시대, 우리가 탈피해야 하는 현 세계는 선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천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선천은 우리가 탈피해야 하는 세계이다. 즉, 선천을 악의 세계⁹⁾, 불의의

7) 전계서 : 공사 3장 5절.

8) Rousseau, Jean-Jacques (transkated by Donald A. Cress), *The Basic Political Writings* (Indianapolis :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87).

9)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계서 : 교법 2장 55절.

경제세계¹⁰⁾, 하극상의 세계¹¹⁾, 불평등의 세계¹²⁾ 등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선천이 이렇게 부정적 상태가 된 이유로는 “...선천에서는 삼상의 탓으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¹³⁾고 기록하여 도수가 틀어짐, 즉 인간의 잘못된 세계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인간의 잘못된 세계의 운영은 “천지인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서로가 대립, 싸우는 상극이 인간의 일들을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¹⁴⁾라고 지적하였다. 즉 인간의 선천은 만물이 대립과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셋째, 선천의 대립과 갈등의 지배원리로 인하여 그 결과는 “선천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맞혀 삼계를 채웠으니 상도를 잃어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¹⁵⁾라고 기술하여, 선천의 참혹성과 부도덕성의 원인을 우주 또는 인간사의 지배원리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선천의 지배원리는 바로 인류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서양문명의 근본인 모더니즘(Modernism)의 원리와 상통한다. 단, 산업화, 기계화, 편리성, 양적 팽창 등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근대성을 서양철학에서는 인간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경쟁원리를 통한 물질문명의 발전을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 즉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근대성은 인간의 이성을 발전시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대성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경쟁과 사회에 있어서도 사회적 적자생존의 원리(Social Darwinism)를 물질문명을 발전시킨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선천의 지배원리와 모더니즘의 지배원리를 대별하여 보면 대립과 상극에 대한 이성과 경쟁이라는 같은 원리임을 볼 수 있고, 인간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단지 전경에서는 대립과 갈등 또는 인간의 지배를 원한이 쌓이고 참혹한 재화가 생겼으며 악의 원인으로 부정적인 시각에 본 반면, 모더니즘에서는 근대성을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필요한 요소로서 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이 추구하여야 할 목표라는 점에서 긍정적

10) 전계서 : 교법 2장 62절.

11) 전계서 : 교법 3장 34절.

12) 전계서 : 교법 1장 67절; 교법 2장 11절; 교법 2장 28절.

13) 전계서 : 공사 2장 20절.

14) 전계서 : 예시 8.

15) 전계서 : 공사 1장 3절.

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선천에 대한 묘사로부터 대순사상의 인간관은 원시사회, 선천, 후천의 다른 세계에서의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원시사회는 경쟁과 반목 이전의 상태로서 이 시대의 인간은 루소의 원시사회의 인간관과 유사하다. 즉, 루소가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하였듯이, 원시사회의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완전히 만족하며, 독립적이고, 전도덕적(pre-moral)이고 행복한 존재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대순사상에서 후천을 원시사회와 대비하고, 원시반본을 강조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선천은 경쟁과 반목의 사회로 마키아벨리, 홉스가 표현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며, 루소가 주장한 원시 이후의 이성시대이다. 즉 “인간이 원시사회에서 지식을 갖고 욕심을 부리게 됨에 따라 평등은 사라지고 개인 재산이 생겨났으며 노동이 필요하게 되었다”¹⁶⁾. 동시에 원시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던 공허감에 의해 질투, 부러움, 욕망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마침내 극단적인 경쟁과 불평등으로부터 분파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와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루소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다툼과 살인에 의해서만이 종식되는 영속적인 갈등이 발생하였고, 사회의 등장은 무시무시한 전쟁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¹⁷⁾ 선천에서의 인간관은 욕망과 탐욕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으로서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언제든지 도덕성을 던져버릴 수 있는 주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셋째, 후천의 인간관은 상제의 후천개벽 이후 추천에서 살면서 이상세계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인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의 인간관은 어떤 세계에 사는 인간이냐에 따라, 그리고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선천 또는 후천을 개척할 수 있는 독립적 능력을 가진 주체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III. 인간해방과 자유

대순사상에서는 인간해방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16) Rousseau, Jean-Jacques (translated by Donald A. Cress), *The Basic Political Writings* (Indianapolis :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87) : 65.

17) *Ibid* : 68.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¹⁸⁾.

선천이라고 하는 현실세계는 상극의 지배논리에 의하여 포위된 세계이므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인간해방과 자유의 주체는 상제와 인간 개인의 양면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인간해방과 자유의 주체가 상제라는 점은 대순사상의 종교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즉,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사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三界)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 금상에 임하여 삼십 년을 지내면서...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¹⁹⁾.

다음으로 인간해방과 자유의 목표에 관해서이다. 인간해방과 자유를 어느 것으로 보느냐는 사회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이상세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선,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²⁰⁾고 한 데서 현세의 우주질서와 운영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목표는 대순사상의 종지에서 볼 수 있는 음양합덕과 신인조화, 해원상생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음양합덕의 내용은 바로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해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한 이상세계의 존재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 세계의 존재양상을 음양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이해할 때 그 범주를 구성하는 개별사물들이 서로의 덕을 합하여 이루어내는 이상적 세계를 설명한 것이다.²¹⁾

둘째, 신인조화의 사상에서 신은 음, 인간은 양이므로 음양합덕에 기초하면 신과 인간도 서로 합본, 합덕이 되지 않을 수 없다.²²⁾ 또한 신인조화 사상으로부터 인간중심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즉 인간이 신과 동격의 반열로 올라가는 신인조화 사상은 구세주인 상제의 노력으로만 이상세계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

18)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계서: 공사 1-3.

19) 전계서 : 전경 예시1절.

20) 전계서 : 공사 1-2.

21) 윤재근, 전계서 : 41.

22) 전계서 : 41-42.

개개인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셋째, 해원상생은 종지에 있어서 종교적 실천의 대강령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것은 증산의 대순한 진리가 선천의 역사를 진단하고 나아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때 천지공사의 본령은 원으로 점철된 선천의 진멸지경의 역사를 해원을 위주로 하여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해원을 나아가 상생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함에 따라 그 진정한 이념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²³⁾

여기에서 또 하나의 논점은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후천과 원시사회와의 유사점과 차이이다. 서양사상에 있어서 루소(Rousseau)가 “자연으로 돌아가자”²⁴⁾고 제시한 것과 같이 자연상태, 즉 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의 문제이다. 루소(Rousseau)가 말하는 자연상태가 원시사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듯이, “그러므로 개벽의 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성이 일을 맡게 되었느니라”²⁵⁾고 한 원시반본이 바로 개벽 이후의 후천세계와 같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시의 자연의 상태에서 이성을 발달을 통해 물질적 풍요라는 얻은 것도 있지만, 자연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는 본성을 잃어버린 것도 많기 때문이다. 루소가 밝혔듯이 이성의 발달로 인해 잃어버린 미덕은 자연과의 공존뿐만 아니라 인간간의 공존을 의미하듯이 대순사상에서도 인간간의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원시사회의 독립된 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개벽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선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경의 방법론과 현대의 서양철학에서 근대성을 비판하고 근대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간의 여러 가지 사상적 시도인 후기근대주의(post-modernism)로 분류할 수 있는 사상에서 제시한 것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즉, 전경에서는 개벽을 위해서는 상제의 천지도수의 정비와 인간의 노력을 함께 직시하고 있다. 이것은 서양사상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순사상의 종교적 측면을 감안하고 본다면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간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점, 그리고 조선 후기 암울한 시대에 민중들이 구세주를 염원한 점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절대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서양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을 이상세계 건설의 주역으로 본 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대순사상에 있어 인존의 형성 이론은 천심즉인심(天心卽人心), 인내천(人乃天), 사인여천(事人如天) 등에서 보이는 인간지상주의적 관점에서 더욱 발전하여 심·

23) 전계서 : 42.

24) Rousseau, Jean-Jacques (translated by Donald A. Cress), *The Basic Political Writings* (Indianapolis :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87).

25)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계서 : 행록 4장 17절.

신의 균형, 신·인의 조화를 견지하여 인간과 외계사물의 동체주의적 내용을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천지보다도 크다²⁶⁾고 하는 창조적 자기표현은 삶의 현장에서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게 하여 생활세계에 있어서의 주체적 자발성과 사상·사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²⁷⁾ 즉 후천선경에서의 인간상이 곧 도덕군자, 진인, 신인이요, 하늘사람이라고 일컫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개벽 즉 이상세계를 맞이하는 주체는 결국 인간인 것이다.

IV. 정부와 정치의 목표와 역할

대순사상에서 정치사상적 측면만을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에 관한 언급을 중심으로 이상적 사회 또는 국가를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 이것이 서양 정치사상가의 국가 및 사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논의해 보겠다.

우선 대순사상에서는 현실, 즉 선천은 탈피하여야 할 대상이고 따라서 이상세계가 건설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여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²⁸⁾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²⁹⁾

“목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백물이 모두 꺾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 되느니라”³⁰⁾

또한 후천선경, 즉 이상세계의 건설에 있어서 결국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 중심적 세계를 이루어 내야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

26) 전계서 : 행록3장 44절.

27) 윤재근, 전계서 : 137.

28)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계서 : 전경 예시 1.

29) 전계서 : 공사 3장 4절.

30) 전계서 : 공사 1장 1절.

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
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라”³¹⁾

“천지 중용지사(天地從容之事)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고 천지 분란지사(天地紛
亂之事)도 자아유지하나니...”³²⁾

“선천에서는 모사재인(謨事在人)하고 성사재천(成事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재천(謨事在天)하고 성사재인(成事在人)이니라”³³⁾

등 인존시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간 역시 “상통천문(上通天文), 하달지
리(下達地理), 중찰인의(中察人義)”³⁴⁾라고 하여 전인적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묘
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정의는 인간이 무궁한 가능성의 존재로서 인간
에게 주어지는 본질적 특성이 인간을 그의 삶에 있어서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결
정자로서의 존재로 규정짓게 하고 있는 점이다. 즉 인간에게 무궁한 가능성이 주
어진다는 사실은 자신의 삶의 주체적 자발성의 신념과 의지가 전제됨을 뜻한
다.³⁵⁾

또한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
라”³⁶⁾고 인간의 창조성, 주체성, 자발성을 분명히 하고, 이상세계에서의 인간의 역
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임낙안(林樂安)이 죽고 최
면암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
락을 튕겨도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³⁷⁾고 하여 인간의 능력이 신과도
비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따라 그 어떤 것, 즉 이상세계의 주
역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인간이 주관하는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 개벽이후 후천선경의 인간사회
와 인간관계, 그리고 정부 및 정치의 모습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과 반목이 지배하여 인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투쟁 상태를
존속시켜 인간의 불행과 평화를 깨뜨리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 전반의 혁

31) 전계서 : 교법 3장 24절.

32) 전계서 : 전경 교법 3장 29절.

33) 전계서 : 전경 교법 3장 35절.

34) 전계서 : 전경 교법 3장 31절.

35) 전계서 : 교법 2장 17절, 38절.

36) 전계서 : 교법 2장 56절.

37) 전계서 : 예시 50.

신을 강조한다. 즉,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³⁸⁾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³⁹⁾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치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하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봉록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⁴⁰⁾

등에서 나타나듯이 기본적으로 법,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인간의 질서를 우선적으로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현재의 투쟁과 반목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도수의 정리를 대순사상에서는 신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이러한 현실세계를 되찾는 의무는 인간에게 있다. 따라서 인간이 상생과 화해의 시대로 근본적으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바꾸어야 함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선천에서의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공격적 본성을 제압할 수 있는 “외면적 강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질서와 이성인 국가라는 외면적 강제장치를 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인간이 모여 있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좋은 정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한계를 설정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과 권력을 확립하는 정치이다. 즉 인간의 부정적 본성에 근본적 의미와 실제적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국가·법·권력·정치의 강제권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는 홉스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를 건설해야 하며, 이렇게 건설된 국가는 자연상태를 극복하여, 외적의 침입과 인간 상호간의 침해로부터 만인을 보호하여 안전을 확보하여 준다”⁴¹⁾고 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둘째, 인간에 대한 가정을 후천선경에서는 완전한 인간 또는 완전한 이상사회를

38) 전계서 : 공사 1장 3절.

39) 전계서 : 예시 17.

40) 전계서 : 교운 1장 16절.

41) Hobbes, Thomas, (edited by Michael Oakeshott), *Leviathan*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62).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간관을 가정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에서의 인간에서 탈피하여 천·지·인 삼계의 이법에 따라서 생을 영위하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인간상이 곧 도덕군자, 진인, 신인이요 하늘사람'이라고 일컫는 인간상이다.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인간의 실질적 존재방식을 뛰어넘어 실존적 존재로의 궁극적 실현을 의미한다. 곧 자신에 내재한 초월적 특성을 구현함으로써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것은 신과의 합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 정신세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²⁾ 즉, 신과 인간의 합일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간이 이상세계가 건설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완전한 인간을 이룸으로써 현실적으로 정치적 평등한 세계를 가정한다.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적이 풀리고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⁴³⁾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범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⁴⁴⁾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⁴⁵⁾

“후천에는 그 닭은 바와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예부터 내려오던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⁴⁶⁾

“사람을 쓸 때에는 남녀노약을 구별하지 않으리라”⁴⁷⁾

42) 윤재근, 전계서 : 67.

43)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계서 : 교운 1장 32절.

44) 전계서 : 예시 81.

45) 전계서 : 공사 1장 32절.

46) 전계서 : 교법 1장 68절.

등으로 반상의 차별, 즉 계급이 없는 사회이며, 모든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는 사회, 그리고 남녀노소 일체의 차별이 없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서 인간이 원한을 품게 되는 원인은 반상의 구별, 적서의 차별, 남존여비, 빈부의 격차,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억압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면은 플라톤(Plato)의 이상국가에서 철폐'을 모든 개인에게 확대한 개념⁴⁸⁾이며, 루소(Rousseau)의 정치적으로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어서 지배와 피지배의 계층이 분리된 것이 아닌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과도 유사⁴⁹⁾하다. 또한 로크(Locke)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계약의 위반은 국가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가정한 채, 개인의 모든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주권자로서의 개인을 의미⁵⁰⁾할 수도 있다. 즉 대순사상에서 인간은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국가와 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적 삶을 영위하는 주체를 의미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넷째, 대순사상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평등, 그리고 경제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즉,

“후천에서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⁵¹⁾

“돈이란 것은 순환지리로 생겨 쓰는 물건이니라. 억지로 구하여 쓸 것은 못되나니 백년 탐물이 일조진이라”⁵²⁾

이것은 경쟁의 원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자원의 균등한 분배라는 경제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니, 경제적 부의 획득이 건전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경제적 정의가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³⁾ 이것은 로크(Locke)의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강조한 자유시장경제체제와는 다르다. 그러나 루소(Rousseau)가 개인의 정치적

47) 전계서 : 교법 2장 40절.

48) Plato (translated by G M A. Grube), *Plato's Republic* (Indianapolis :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74).

49) Rousseau, Jean-Jacques (translated by Donald A. Cress), *The Basic Political Writings* (Indianapolis :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87).

50) Locke, John, (edited by C B. Macpherson),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Indianapolis :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80).

51)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계서 : 예시 80.

52) 전계서 : 교법 1장 64절.

53) 윤재근, 전계서 : 61.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한 바와 같이⁵⁴⁾ 대순사상에서도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넷째, 대순사상이 서양 정치사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민족국가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평등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제창하였다는 점이다.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 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⁵⁵⁾라고 하여 마키아벨리(Machiavelli)와 같이 한 국가가 경쟁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을 피하고 국가간의 상생⁵⁶⁾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간의 관계 역시 인간과 외계자연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에 쌓이고 맺혀서 천지가 상도를 잃은 부정적 현실에 기인한다. 이것은 당시의 조선국 주변 정세가 각축의 양상을 보이는 위급한 상황이며 물질문명에 대한 인간의 편견과 현실적 상극의 실상이 우주의 질서를 교란시킨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상극과 원한의 근본적 원인이 되어 국가간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간의 노력에 따라 모든 국가가 평화와 안정을 찾는 세계국가 출현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각 국가의 연합으로 협력을 찾는 각종 국제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대순정치사상에서의 인간학은 주어져 있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표출되는 위기의 상황, 즉 선천에서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강력한 힘에 의해 질서가 안정된 상황에서의 인간은 선한 존재로 인식되어 국가와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대순정치사상에서 말하는 인간관의 실천적 결론은 인간의 보편적 욕망과 본성이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법과 제도의 확립이라는 조건을 마련하고, 이 속에서 인간의 제2의 본성, 즉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선의 유지를 위한 공동적 삶의 영위라는 인간의 본래적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대순정치사상에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간에도 화해와 상생의 원리에서 화합하는 세계국가의 건설이 국가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순정치사상에서는 서양 정치사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국가의 모습, 특히 국가 및 사회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렇지만 대순의 이상사

54) Rousseau, Jean-Jacques (translated by Donald A. Cress), *The Basic Political Writings* (Indianapolis :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87).

55)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계서 : 교법 3-23.

56) Machiavelli, Niccolo (translated by George Bull), *The Prince* (New York : Penguin Books, 1981).

회는 시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이며, 시민 간에 서로 알아보고 친밀하게 지내며, 모든 책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동시에 공동의 행복을 모두가 함께 협동하고 항상 추구하는 사회를 원하고 있으며, 인간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이 되어 그의 능력을 사회에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 절대자 또는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단위에서 모두가 협력하는 분권화된 사회가 모든 사람이 나누어야 할 이상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순정치사상은 개혁을 통하여 상생의 법리가 운행할 수 있도록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혁파하여 후천의 선경세계를 기반으로 모든 개인과 사회, 국가가 정치·경제적 자유와 안정, 만민평등의 민주적 사회, 국가간의 평화와 안정,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세계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순정치사상을 서양 정치사상과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 서양정치사상과 대순 정치사상의 비교

사상	자연 상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목표	정부의 역할
마키아벨리	- 경쟁상태 - 전반적 이기주의	- 군주, 귀족 : 이기적 - 대중 : 도덕적, 협동적	- 독립국가 건설, - 국가 주권 확보 - 책임 : 군주의 명령에의 복종 - 탈피 대상 : 약한 정부	강력한 정부, 국가의 독립 유지
홉스	전쟁상태	- 평등(육체, 정신) - 욕망 추구	- 인간 생명 보호, 안전, 평화 - 책임 : 군주의 명령 복종 - 탈피 대상 : 무정부 상태	- 시민의 계약에 의거 정부 탄생 - 정부는 모두에 이익이 되므로 강한 정부 유지 - 권위를 바탕으로 한 만민에 평등한 정부
로크	- 경쟁 상태, 단 개인이 문제해결 가능 - 전쟁상태는 예외적	- 평등, 독립, 자기 이익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과 합리성 소유, 계약 체결 가능 - 욕망 추구는 예외적	- 인간의 자유 및 생명 보호, 사유재산 보호 - 책임 : 법(계약)에 대한 복종 - 탈피 대상 : 강한 국가	-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 - 개인 모두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 - 개인의 계약 후에도 정부에 모든 것을 양도하지 않음

사상	자연 상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목표	정부의 역할
루소	•근본적 원시상태 : 자기만족, 경쟁하지 않음, 지배욕 없음 •현재 상태 : 공허감에 따른 욕망 추구	•원시상태 : 자유, 전도덕성, 전합리성, 창조성, 긍정적 •현재 상태 : 욕망에 의한 속박	•원시상태(참여 정치, 민주정치)로의 회귀, 경제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상호의존 •책임 : 시민참여 •탈피 대상 : 욕망, 인간의 공허감을 일으키는 지혜	•상호간 협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립된 지역사회, 갈등의 제거, 지배와 복종의 관계 제거
대순 사상	•원시상태 : 행복, 경쟁이 없는 사회 •선천 : 경쟁, 반목 •후천 : 상생, 조화, 협동	•원시 : 자유, 도덕 •선천 : 욕망추구, 갈등 •후천 : 이성적 존재	•원시반본, 후천선경 건설,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책임 : 후천선경의 지속을 위한 인간의 노력 •탈피대상 : 선천적 인간	•인간중심, 상생 •정치적 평등 및 자유 •경제적 풍요와 정의 •국가간 안정과 평화

V. 결론

서양의 정치철학자들 가운데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독립국가를 위해 강력한 정부와 필요를 역설하였고⁵⁷⁾, 홉스(Hobbes)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권위적 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⁵⁸⁾, 로크(Locke)는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탈피하여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루소(Rousseau)는 자연상태와 유사한 개인의 경제적 독립과 정치적 상호협동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⁵⁹⁾ 있다. 이와 같이 각 정치철학자들은 자신이 가정한 자연상태와 인간의 본성

57) Machiavelli, Niccolo (translated by George Bull), *The Prince* (New York : Penguin Books, 1981).

58) Hobbes, Thomas, (edited by Michael Oaketshott), *Leviathan*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62).

59) Locke, John, (edited by C.B. Macpherson),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Indianapolis :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80).

에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국가 및 정치체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정치사상가들의 이론적 틀을 대순진리회 정치사상에 비교하여 보았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구축하는 대상을 인간간의 반목과 경쟁으로 보았다. 따라서 서양정치철학적 관점에서만으로는 인간해방을 위해서 이러한 반목과 경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대순진리회의 정치철학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서 강조하는 천지도수의 정비와 상생이 바로 자유와 행복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순에서는 인간평등과 자유, 그리고 주체적 개인에 의한 공동선(共同善)의 추구가 정치철학의 중심이다. 즉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에 의한 경쟁심리를 어떻게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하느냐에 귀착된다. 이것은 개인적 관점에서는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을 교육하는 것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으로 귀결된다.

대순정치사상은 증산이 제창한 사상의 종교적 가르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순정치사상 역시 서양정치사상과 같이 현실을 반영하였고, 종교적 틀에서도 이상세계는 현실세계의 극복이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구복적 종교관만이 전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민중이 어떻게 해야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후천개벽이 단순히 절대자의 역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한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순진리회의 정치철학적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용민, 「서양정치사상에 있어서의 정치와 교육」, 서울 : 한국정치사상학회, 《한국정치사상연구》, 2000.
- 신복룡, 「동학의 정치사상」, 서울 :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1983..
-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윤재근, 「심학적 인간심성과 무자기의 인간이해」, 포천 :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13집, 2001.
-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서울 : 한국종교교육학회, 《한국종교교육연구》 1996.
- 정연선, 「기독교의 정치사상」, 서울 :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1990..
- 홍성수,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http://user.chollian.net/~materials/mydoc/machia.htm>, 1999.
-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서울 :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 Ebenstein, H. George, *Great Political Thinkers*, Princeton : Princeton

- University Press, 1951.
- Fleisher, Martin, *Machiavelli and the Nature of Political Theory*, New York : Kingsport Press, 1972.
- Hobbes, Thomas, (edited by Michael Oakeshott), *Leviathan*,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62.
- Locke, John, (edited by C.B. Macpherson),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Indianapolis :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80.
- Machiavelli, Niccolò (translated by George Bull), *The Prince*, New York : Penguin Books, 1981.
- Plamenatz, John, *Man and Society*,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61.
- Plato (translated by G.M.A. Grube), *Plato's Republic*, Indianapolis :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74.
- Rousseau, Jean-Jacques (translated by Donald A. Cress), *The Basic Political Writings*, Indianapolis :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87.
- Sabine, H. George,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London : George G. Harrap & Co., Ltd., 1948.
- Strauss, Leo, *Thoughts on Machiavelli*,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58.

The political thought of Daesoonjinrihoe

Park, Hee-Bong

(Dae Jin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world view and perspective of human nature, human emancipation and freedom, the goal and role of government and politics of Daesoon in comparison with western political philosophers. Daesoon's basic assumption of human nature is selfish, desirous, and competitive each other in the real world. Therefore, the final goal of Daesoon's political thought is to resolve the competition of human beings. Daesoon's political idea focuses on the rearrangement of universal system and coexistence for human freedom and happiness. From this perspective, the only free government and politics is governed by free and perfect individuals. That is, Daesoon's political theory mean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system by the general will of the free people.

Key words: Daesoonjinrihoe, political thought, state of nature, human nature, role of state.